

2022

한·아시아 청년포럼

HAN ASIA YOUTH FORUM

한·아시아 청년토론대회

한·아시아 국제학술지 대회



PROGRAM BOOK

제 1 회

한·아시아 청년포럼

(Han Asia Youth Forum)

단장 남승현, 집행부장 임윤정,
토론대회 운영위원장 최하은, 학술지 운영위원장 경민경,
대회운영팀 대내팀장 백옥진, 대외팀장 Yize Li,
프로그램북 디자인 박주영, 임지우,
프로그램북 번역 Carmen María Quiñonero López,
프로그램북 검토 홍리안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 세부 일정 및 상금 변동 가능. 변동 시 웹사이트에 기재

목 차

1.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의 소개-----	p. 3
2. 제 1 회 한·아시아 청년포럼-----	p. 8
2.1 포럼 개요-----	p. 10
2.2 포럼 대주제-----	p. 12
2.3 토론 세부 주제-----	p. 18
2.4 학술지 세부 주제-----	p. 32
3. 양식-----	p. 40
3.1 토론 양식-----	p. 40
3.2 학술지 양식-----	p. 47
4. 문의-----	p. 50
5. 참고문헌-----	p. 51

1.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의 소개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설립 이념 및 목적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현상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년 공동체입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은 디자인 및 마케팅 팀, 대회운영팀 그리고 정기활동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은 대회운영팀을 주축으로 청년들의 소통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아시아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아시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에서 바라보며, 떠오르는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고안하는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이 되고자 합니다.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3 원칙

- 1) 민간부문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협력 및 평화에 기여한다.
- 2)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와 '미래'간 소통 채널을 제공한다.
- 3) 전 과정에서 수평적인 의견 제시와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추구한다.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조직도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단장 및 집행부장

	<p>남승현</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단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 국제관계학 졸업 요네야마 로타리 클럽 장학생</p>
	<p>임윤정</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집행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졸업 수석의장, 한-아세안 청년 모의정상회의 (경제위원회)</p>

단체 대표: 단장 남승현, 집행부장 임윤정

주요담당업무: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의 모든 활동 및 행사 운영·관리

- 한·아시아 청년 포럼: 2022년 8월에 이틀간 진행 예정, 청년토론대회와 국제학술지 대회 진행
- 한·아시아 네트워크: 석사/경력 10년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중장년을 모집하여 고등학교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한·아시아 연구소: 다양한 주제를 연구 및 집필하고 관심사 형성

한·아시아 대회 운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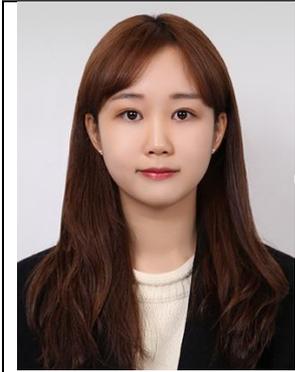
	<p>최하은</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대회 운영팀 토론팀 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IIAS 편집조교 유엔거버넌스센터 (UNPOG) 인턴</p>
	<p>경민경</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대회 운영팀 학술지팀 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세종연구소 연구조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ODA 영프로페셔널</p>
	<p>백옥진</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대회 운영팀 대내팀장 경찰대학 법학과 전공 서울경찰청 5기동단 소속</p>
	<p>이역택</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대회 운영팀 대외팀 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전공 캐나다 맥길대학교 경제학 졸업 AIESEC 인턴</p>

팀장: 최하은, 경민경, 백옥진, 이역택

주요담당업무: 매년 7-8 월에 개최되는 한·아시아 청년포럼 기획 및 진행

- 4 개의 부서인 '토론대회팀', '국제학술지팀', '대내팀', '대외팀'으로 구성
- 2022 년 8 월 중에 진행되는 제 1 차 한·아시아 청년포럼의 대회 운영과 진행 담당

디자인 및 마케팅 팀



박주영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디자인 및 마케팅팀 팀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전공
의장, 한-아세안 청년 모의정상회의 (정치안보위원회)

팀장: 박주영

주요담당업무: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의 전반적인 홍보관련 업무전담

- 포럼에서 사용되는 PPT, 포스터, 간행물 등 디자인이 필요한 업무 담당
- 완성도 있는 홍보자료 제작 및 각 팀에서 제작이 필요한 일의 디자인 및 홍보 담당

MZ Asia 매거진 팀



임지우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정기활동팀 매거진팀 팀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2020 World Miss University

팀장: 임지우

주요담당업무: 매거진 디자인 및 제작

- 포럼, 정기 활동 등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의 활동을 매거진(잡지)로 집필하여 외교부, 외부 기관에 정기적으로 글 투고
-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책자 혹은 매거진의 행태로 제작

정기활동팀

	<p>김선빈</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정기활동팀, 대외활동팀 팀장 중앙대학교 경제학 전공 U.FE.A 금융공학학회</p>
	<p>박찬호</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정기활동팀, 기자팀 팀장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 전공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중앙투자연구회 회장 및 위원</p>
	<p>김수진</p> <p>한·아시아 청년 대표단 정기활동팀, SNS 홍보팀 팀장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정치외교학 전공 유엔한국청년협회 기획팀 제 27 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의장 (제 1 영어위원회)</p>

팀장: 김선빈, 박찬호, 김수진

주요담당업무: 청년 대표단 정기 활동

- 한·아시아 청년 대표단에서 중장기적으로 (3-6 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학생(청년)들을 선별하여 3 개의 팀으로 나누어 청년 대표단으로 대내/대외 활동을 담당
- 대외활동팀은 세미나 및 포럼 기획, 기자팀은 청년 대표단 활동 기사화, SNS 홍보팀은 청년 대표단 활동을 SNS 에 홍보하는 활동 진행

2. 제 1 회 한·아시아 청년포럼

한·아시아 청년토론대회

<대주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역할 및 방향성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의제>

교육: 아시아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ODA)는 초등교육보다 직업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가?

젠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해결은 양립할 수 있는가?

사회: 정부는 보건안보의 위협을 다루는 데에 있어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거버넌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정치경제: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포괄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문화: 즉흥토론 주제 (주제 대회 당일 현장 공개)

공모대상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 국적의 한국어가 가능한 고등학생 및 2 년제 이상 대학(원)생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자 (3인 1팀 구성)

접수기간 및 방법

7월 18일 (9:00) ~ 8월 15일 (23:59)

*웹사이트(WWW.MZASIA.ORG)에 있는 구글폼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대회장소

예선: (온라인) ZOOM

본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ECC)

참가비용

팀 기준 9만원 (개인 3만원)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북 참조*
HTTPS://WWW.MZASIA.ORG/
상금 및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웹사이트에 기재

시상 내역

대상: 상장 및 3박 5일 베트남 여행 (1팀)

(*항공 및 숙박 지원. 코트라 견학 필수이며 이외에는 자유여행. 코로나 상황 및 일정에 따라 상금 70만원으로 대체 가능)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1팀)

우수상: 상장 및 상금 25만원 (2팀)

*예선전 참여 시 참가 인증서 제공

토론대회 진행 일정

예선: 2022년 8월 25일 9:00 - 21:00 (온라인)

본선: 2022년 8월 26일 9:00 ~ 20:00 (오프라인)



한·아시아 국제학술지대회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 안보"

코로나로 인하여 증가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 위협들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및 협력 방안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 방안 분석

UNDP가 정의한 7 가지의 인간안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시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공모대상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 국적의 한국어가 가능한 고등학생 및 2 년제 이상 대학(원)생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자 (개인 또는 팀 참여,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 팀원 모두 자격 충족 해야함)

접수기간 및 방법

7월 18일 (9:00) ~ 8월 5일 (23:59)

*대회 접수와 학술지 예선 제출일은 상이함

멘토링 신청은 7월 29일까지 가능

*팀별 선택 사항, 필요시 신청가능. 멘토링 신청 여부는 대회 접수와 무관

대회장소

예선: 학술지 본문 이메일 제출 및 심사

본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ECC)

시상 내역

대상: 상장 및 3박 5일 베트남 여행 (1팀)

(*항공 및 숙박 지원. 코트라 견학 필수이며 이외에는 자유여행. 코로나 상황 및 일정에 따라 상금 70만원으로 대체 가능)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1팀)

우수상: 상장 및 상금 25만원 (1팀)

*예선전 참여 시 참가 인증서 제공

국제학술지 대회 진행 일정

예선: 2022년 8월 12일 23:59 (이메일 제출)

본선: 2022년 8월 26일 12:00 ~ 20:00 (오프라인)

참가비용

예선 참가 무료, 본선 진출팀 한정 팀 기준 5만원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북 참조*

[HTTPS://WWW.MZASIA.ORG/](https://www.mzasia.org/)

상금 및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웹사이트에 기재



2.1 포럼 개요 * 세부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웹사이트에 기재

청년토론대회

Day 1 (8월 25일)

예선전은 온라인 진행 / 본선전은 오프라인 진행

시간	활동	내용
8:30-9:00	줌 접속	참가자 전원 줌 접속 완료
9:00-9:30	인사말	주최측 인사말 및 토론 대회 소개
9:30-10:00	예선 1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0:00-11:30	예선 1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1:30-12:00	예선 2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2:00-13:30	예선 2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3:30-14:30	점심	점심
14:30-15:00	예선 3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5:00-16:30	예선 3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6:30-17:00	예선 4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7:00-18:30	예선 4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8:30-19:00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및 주최측 점수 합산
19:00-20:00	발표	예선 순위 발표, 본선 진출 팀 확정
20:00-	종료	종료

Day 2 (8월 26일)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시간	활동	내용
8:30-9:00	참가자 체크인	오프라인 체크인
9:00-9:30	인사말	주최측 인사말 및 포럼 소개
9:30-10:00	본선 4강 라운드 설명	즉흥 토론 주제 설명 및 토론장 이동
10:00-10:40	즉흥 토론 준비 시간	즉흥 토론 준비, 전자 기기 반입 금지
10:40-12:00	본선 4강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2:00-13:00	점심	점심
13:00-14:30	사진 촬영 (본선 진출자 전원, 참가자, 스태프 등), 주최측 준비 강연	
14:30-16:30	학술지 대회 본선 발표 참관	
16:30-17:00	토론 결승 설명	주제 설명 및 결승 준비
17:00-18:00	토론 결승	결승 진행
18:00-18:30	쉬는 시간	토론 대회 순위 확정

18:30-19:00	시상	포럼 (토론 대회, 학술지 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
19:00-	폐회식	폐회식

국제학술지 대회

Day 1 (8 월 25 일)

예선전 심사 후 본선 진출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웹사이트에 예선 결과 공지/ 본선전은 오프라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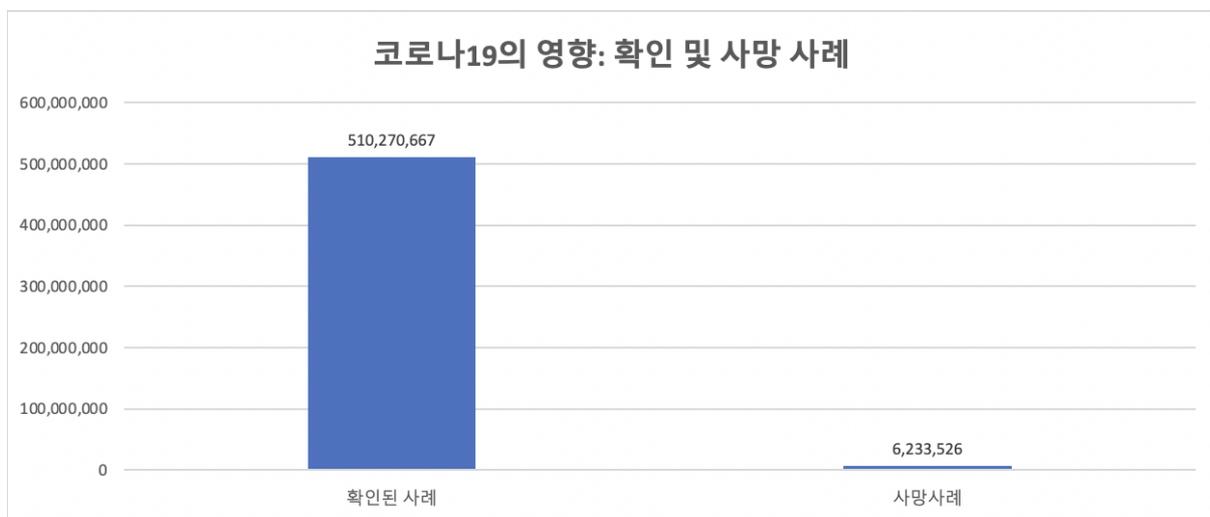
Day 2 (8 월 26 일)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시간	활동	내용
12:00-13:00	참가자 체크인	오프라인 체크인
13:00-14:30	사진 촬영 (본선 진출자 전원, 참가자, 스태프 등), 주최측 준비 강연	
14:30-16:30	본선 발표 (상위 3 팀)	각 팀 발표 (15-20 분) 후 질의응답 (10 분)
16:30-18:00	토론대회 결승 참관	토론 대회 결승 참관
18:00-18:30	휴식시간	토론 대회 순위 확정
18:30-19:00	상장 수여식	포럼 (토론 대회, 학술지 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
19:00-	폐회식	폐회식

2.2 포럼 대주제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유례 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에서 발생한 첫 확진 사례¹를 시작으로, 전염병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뒤덮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특히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전염병으로 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경제와 그 외 다른 영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변화들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 확진 및 사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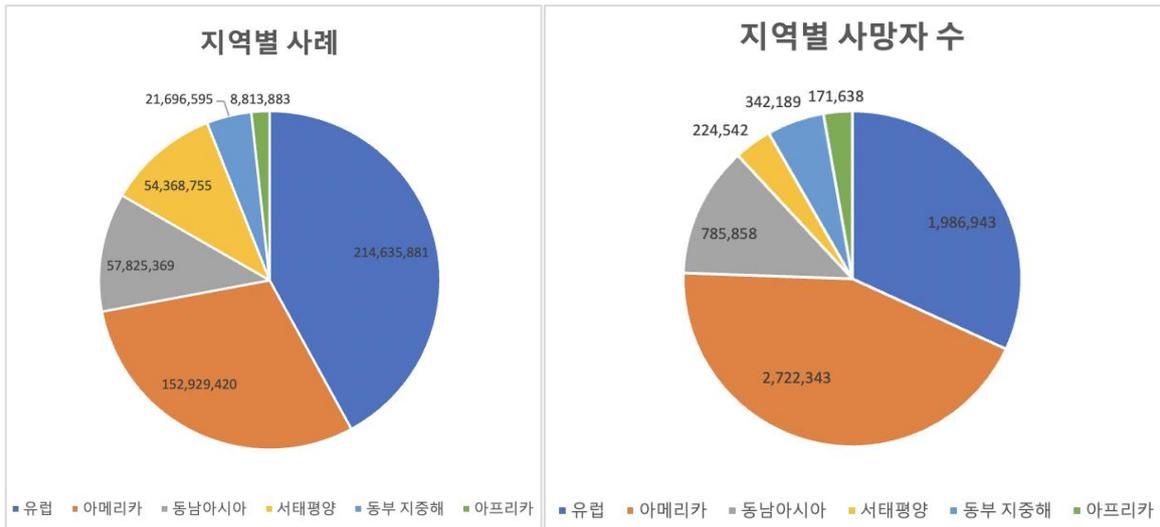


출처: 세계보건기구 (2022)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2년 4월 29일 기준 510,270,667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와 6,233,526 건의 사망 사례가 기록되었다.² 2022년까지도 확진 사례와 사망 사례는 2022년 현재까지도 증가하고 있다.

1 싱가포르 정부. (2021. 5. 14.). 2 단계(경계 강화)에 따른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Singapore Gov.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https://www.gov.sg/article/additional-restrictions-under-phase-2--heightened-alert>

2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코로나바이러스 현황판. <https://covid19.who.int/>



출처: 세계보건기구 (2022)

위 그래프가 나타내듯, 세계 모든 지역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전염병 확산 초기에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의 특성상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이나,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폐기 등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바이러스는 다가오는 미래에 국제 사회가 맞닥뜨릴 과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적으로 코로나의 영향력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를 예측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가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무리가 있음을 주장해왔으며, 변이 전염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바이러스의 완전한 박멸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 급변한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질병, 환경과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인간 안보”의 개념이 강조될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이유 외에도 사회적 안정성, 사회 통합과 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도가 강조될 것이다.

3 HARTIGAN-Go. K. Y., Mendoza. R. U. (2021. 10. 22.). 싱가포르와 필리핀: 제로 코로나 19로부터 코로나 19와 함께 살기까지. -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10/singapore-and-the-philippines-from-zero-covid-19-to-living-with-covid-19/>

코로나 19 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전망은 어둡지 만은 않다. 인간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 시민 사회는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의 노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데에 절실하다. 지금까지 급속하게 퍼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목표 이행에 집중해왔다면, 현 시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설립하고 추구하는 패러다임 변환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분석과 예측을 통해 또 다른 위협의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며, 지구촌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 포럼에서 또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과 연대의 형태, 양상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청소년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해당 나라의 청(소)년의 인식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아세안-한국 센터가 실시한 2021 상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청소년들 중 90% 이상이 한국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와는 대비되게 한국 청소년 중 약 50%만 아세안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의 호감도는 약 40% 정도로 측정되었다.⁴ 이처럼 아세안 청소년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호감도가 낮은 것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과 한국 청소년들이 타 국가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세안-한국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와 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더해,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 협력의 강화, 민간 교류의 확대와 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 증진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는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협력 및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핵심 과제이다.

4 아세안-한국 센터 (2021), 2021 상호 인식 조사

한국과 아세안에 대한 관심 (단위: %)

■ 현지 아세안 청년 ■ 주한 아세안 청년 ■ 한국청년

한국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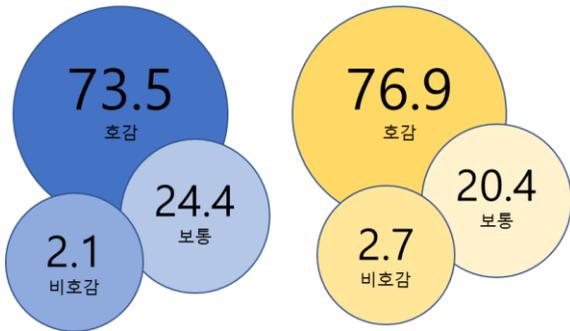
아세안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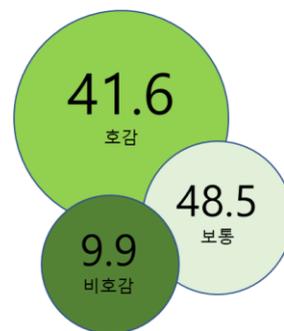
전반적 호감도 (단위: %)

■ 현지 아세안 청년 ■ 주한 아세안 청년 ■ 한국청년

한국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



아세안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



출처: 아세안-한국 센터 (2021), 2021 상호 인식 조사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 역할 Top3

■ 현지 아세안 청년	21.1	19.7	14.8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교육 참여 확대	아세안 거주 한국 청년과의 교류 확대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18.9	18.5	17.0
■ 주한 아세안 청년	18.9	18.5	17.0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교육 참여 확대	한국과 아세안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아세안 거주 한국 청년과의 교류 확대
	24.8	15.7	15.7
■ 한국청년	24.8	15.7	15.7
	아세안에 대한 편견과 오해 바로잡기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교육 참여 확대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교육 참여 확대

(단위: 백분율)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Top3

현지 아세안 청년	주한 아세안 청년	한국청년
		
1위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2위 경제협력 관계 강화 3위 정부 수준의 소통과 신뢰 증진	1위 경제협력 관계 강화 2위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3위 교육 및 인적교류 확대, 정부 수준의 소통과 신뢰 증진	1위 경제협력 관계 강화 2위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3위 정부 수준의 소통과 신뢰 증진

출처: 아세안-한국 센터 (2021), 2021 상호 인식 조사

한국의 영향력과 역할의 확대

2021년 기준, 한국은 지난 11년간 수출 증가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⁵ 경제적 발전 외에도, 한국은 막강한 소프트 파워 (soft power)를 키웠다. 먼저, 2021년 G7 정상회담 참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두 번째로, 한국은 영화와 K-팝 등 문화를 통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축적했다. 미나리와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은 국제적인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해당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케이팝 가수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함을 입증했다.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사회에서 큰 기대와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현재, 국제 사회를 무대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5 CNBC. (2022. 1. 25.). 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 GDP 성장이 11년 간 최고치를 기록. CNBC.
<https://www.cnbc.com/2022/01/25/south-koreas-gdp-growth-hit-11-year-high-in-2021-as-exports-boom.html>

2.3 토론 세부 주제

대주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역할 및 방향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중점 목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국방 등 전통적 안보의 위협이 주요 화두로 두었던 때와는 달리, 인류는 치명적인 보건 안보의 위기를 경험하며 개인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자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다방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고민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 본 토론대회는 교육, 젠더, 사회, 거버넌스, 정치경제, 문화의 6 가지 분야에 관련하여 논의해보아야 할 의제들을 다루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 대회 분야 및 토론 질문>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역할 및 방향성”

-
1. **교육:** 아시아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ODA)는 초등교육보다 직업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가?
 2. **젠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해결은 양립할 수 있는가?
 3. **사회:** 정부는 보건 안보의 위협을 다루는 데에 있어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4. **거버넌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5. **정치경제:**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포괄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6. **문화:** 즉흥토론 주제 (주제 대회 당일 현장 공개)
-

A. 교육 (Education)

토론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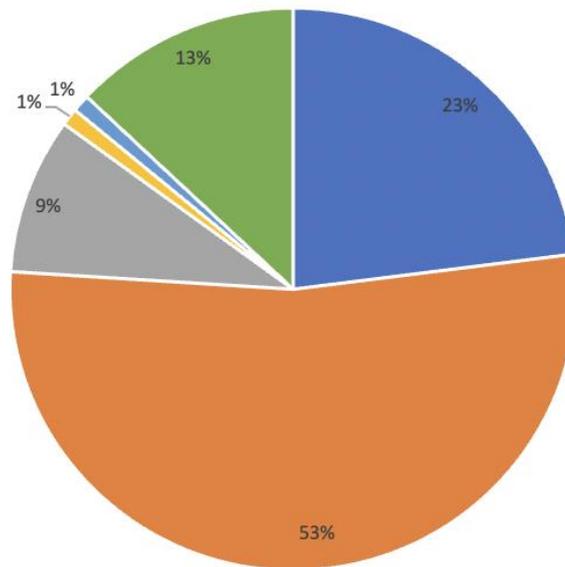
아시아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초등교육보다 직업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가?

찬성: 아시아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직업교육에 집중되어야 한다.

반대: 아시아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초등교육에 집중되어야 한다.

배경:

양자간 원조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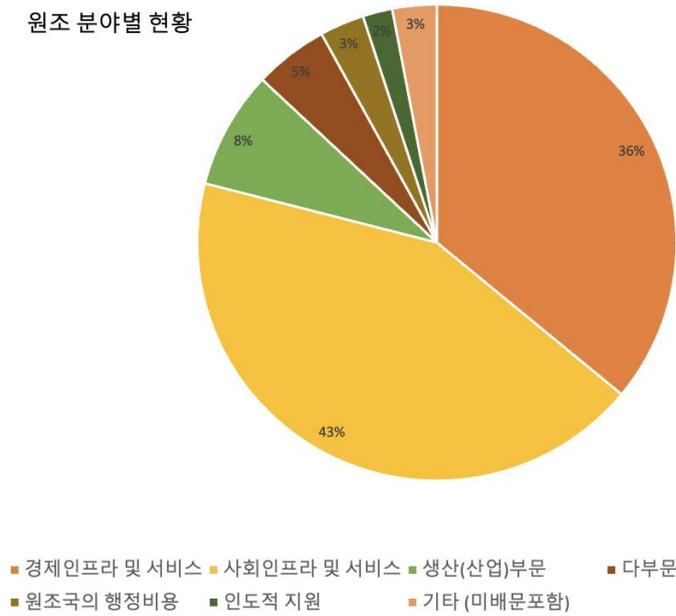
■ 아프리카 ■ 아시아 ■ 아메리카 ■ 유럽 ■ 오세아니아 ■ 지역미배분

총 양자 원조: 31,693.08 (백만 달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 2020 세계 ODA 통계 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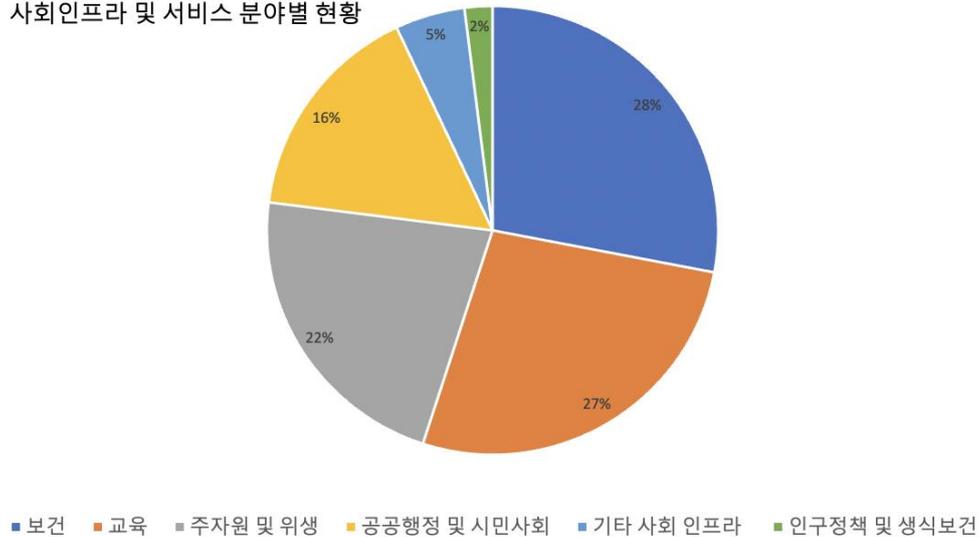
원조 분야별 현황

원조 분야별 현황



주요 분야별 현황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별 현황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 2020 세계 ODA 통계 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 (A+B+C+D)	337.05	228.75	260.29	366.69	222.08	364.21	259.82
교육일반 (A)	24.12	28.76	62.66	65.25	36.89	78.34	26.17
기초교육 (B)	52.42	26.19	45.79	41.65	41.65	42.94	31.72
중고등교육 (C)	66.84	32.51	83.69	104.94	79.51	82.52	33.45
대학, 전문교육 (D)	193.67	141.29	68.16	154.85	64.03	160.41	168.4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 2020 세계 ODA 통계 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위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ODA 의 50% 이상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시아는 한국의 ODA 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ODA 의 40% 이상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지원이고, 그 중에서도 보건분야와 비슷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교육이다. 그 중에서 초등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ODA 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인 2019 년도에는 직업훈련에 대한 ODA 가 초등교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은 노동인구의 생산성과 역량에 직결되며,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직업교육을 향한 ODA 증가가 개발도상국의 국가 자립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초등교육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고, 정서적, 사회적 및 지적 능력의 가장 중요한 발달시기로, 초등교육은 개인의 생애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초등교육의 수혜여부는 이후의 중, 고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교육의 보장이 중요하다. 이에, 한-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직업교육과 초등교육 중 어떠한 분야에 대한 교육 ODA 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Case Study:

‘교육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NGO 월드투게더의 초등교육과 직업교육개발협력 사례

월드투게더는 교육개발협력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국제개발협력 NGO 로 2020 년 COVID19 로 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서 직업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에티오피아 LG-KOICA 희망직업학교의 설립이 있으며, 이를 통해 ICT 와 전자전기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 직업교육의 수혜자들의 높은 국가자격증 시험 통과율과 취업률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취창업 취업(졸업)		
년도	취업	창업
2017년	53명	9명
2018년	41명	10명
2019년	53명	19명

지원내용



출처: 월드투게더 2020 년 연차보고서

또한 베트남 유통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현지의 유통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드투게더의 직업교육은 수혜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인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장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교육 지속하기 어려운 어린이부터 청년 계층에게 생활지원을 포함한 기초교육(베트남 희망보육원 및 희망교육센터, 케냐 통합 유치원·초등학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등교육 수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케냐 통합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초등학교

265명



■ 통합유치원 ■ 초등학교

베트남 땀자 희망보육원

베트남 땀자 지역의 빈곤·편부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혜자

26명



*수혜자 수지에는 어린이·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년별 인원(명)



수혜자 성비(%)



지원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영양지원 정서지원

Discussion Questions

- 1) 직업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공여국과 수여국이 각각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제공해야 하는가?
- 2) 초등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공여국과 수여국이 각각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제공해야 하는가?

B. 젠더 (Gender)

토론질문: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해결은 양립할 수 있는가?

찬성: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은 양립할 수 있다.

반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은 양립할 수 없다.

배경:

코로나 19 이후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다.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저출산 현상이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복지제도의 결여로 인한 사회문제임을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N 포세대' 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할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 자체도 버거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회복지제도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결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둘째, 저출산 현상이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뉴노멀 현상임을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여기서 저출산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시대의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가치관의 변화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형성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 두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과연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Case Study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의 양립가능성에 찬성하는 사례.

최영미 & 박윤환 (2019)의 논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고, 특히 과도한 교육열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에도 큰 부담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출산과 양육에서 여전히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기업 차원에서의 공평한 지원 및 대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경제 및 사회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의 양립가능성에 반대하는 사례

저출산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젊은 세대가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의 결과이고, 저출산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앞선 논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인간의 필수적인 삶의 양상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 자체가 존중 받아야 할 '선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제도의 지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있는 뉴노멀 현상 중 하나임을 주장한다.

Discussion Questions

- 1)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이 양립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제도가 필요한가?
- 2) 저출산이 뉴노멀 현상으로 인식되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이 양립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C. 사회 (Society)

토론질문:

정부는 보건 안보의 위협을 다루는 데에 있어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찬성: 정부는 보건안보의 위협을 다루는 데에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대: 정부는 보건안보의 위협을 다루는 데에 있어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배경:

코로나 19 라는 범국가적인 위기를 통해 사회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 국가가 사전에 이러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하게 되었다.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에 따르면, 예방단계(Prevention)는 재난의 규모를 완화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뜻한다. 대응단계 (Response)는 재난이 일어난 직후, 인명피해 최소화와 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단계를 말한다. 인류는 코로나 19 를 겪으며, 전통적 안보의 보호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벗어나, 이제는 질병,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비전통안보, 즉 인간안보에 새로운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보건안보의 위협들을 고려해볼 때, 정부가 예방과 대응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Case Study: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사례

유럽의 국가들 중 독일과 핀란드는 비교적 코로나 19 초기대응을 잘 이행한 편이며, 두 나라는 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보건부와 같은 공공, 행정인프라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 대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고, 의료자원의 양도 부족한 편이 아니었다. 또한 긴급한 보건위기상황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태도와 감염병 정책을 준비하는 기관(RKI, THL)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응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사례

코로나 19 의 발발 이후, 한국의 K-방역모델을 살펴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중점을 둔 정책시행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이나 도시봉쇄와 같은 강력한 통제정책이 아닌, Triple T (Test, Trace & Treat) 전략을 통해 전염병 감염의 빠른 확산을 제어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가격리 시설 확보와 의료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Discussion Questions

- 1) 잠재적인 보건 안보의 위협에 맞서, 예방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 2) 잠재적인 보건 안보의 위협에 맞서, 대응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D. 거버넌스

토론질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찬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반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배경:

코로나 시대에 ‘국민보건의 수호’라는 목표아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주도의 거버넌스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를 포괄한 ‘국가’가 코로나 19 라는 국제적인 위기에서 책임과 의무의 한계 상황에 처하자 정부 이외의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기관들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새로운 주체들은 각 나라의 정부와 국제기구 주도의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의 일부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다. 코로나 19 의 위기 대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기대가 국가별로 다르기에,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한·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Case Study:

정부주도의 거버넌스의 긍정적인 사례 (코로나 시대)

K-방역으로 주목받은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거버넌스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이다.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영업시간 및 운영제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워크스루(Walk-through) 등의 방식을 통해 한국정부는 코로나 19 초기대응에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코로나 19 초기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1-2 주의 동선을 파악하고, 비감염자들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정부 주도 체제 아래 한국은 코로나 19 초기에 타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의 비율과 감염속도가 낮은 성공적인 K-방역으로 이름을 알렸다.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의 긍정적인 사례 (코로나 시대)

시민사회가 중앙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주도적으로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한 유명한 사례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정책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대응에 앞장섰다. 일본 시민사회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고용관련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며,

푸드뱅크와 어린이들을 위한 식당(“kodomo shokudo”)들을 운영했다. 이 식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적극 확대했다. 특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단체 사회 연대(Novel Coronavirus Support Organizations Social Solidarity)”는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처럼 일본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제작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Discussion Questions

-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떠한 거버넌스 형태가 필요한가?
- 2) 정당한 국가의 역할 및 개입은 무엇이며, 위기 상황에는 그 정도의 확장이 가능한가?
- 3)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전개 방향은 무엇인가?

E. 정치 경제 (Politics and Economy)

토론질문: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포괄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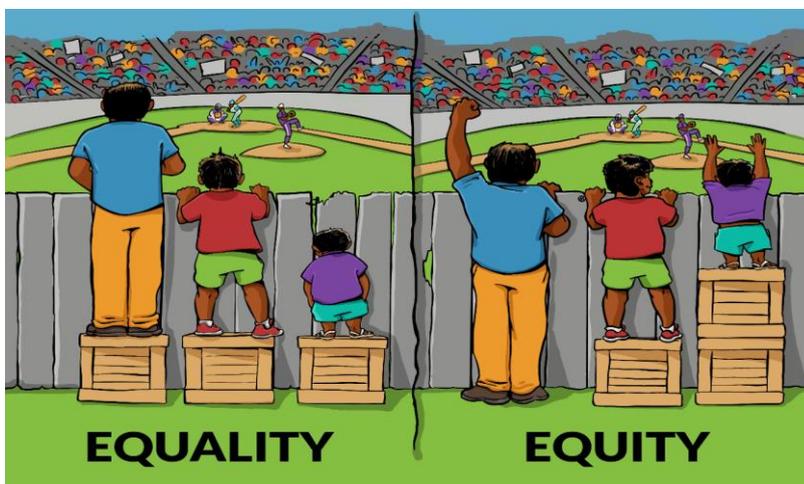
찬성: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포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대: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선택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배경: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포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선택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포괄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의 핵심개념은 평등함(Equality)과 공평함(Equity)이라는 가치에 있다. 평등함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지원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수준 및 상황,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평함을 기준으로 한 선택적 지원은 공정하고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두 개의 패러다임 중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지원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Case Study:





출처: 뉴스포스트 (2021). [소통광장-재난지원금]④ 전문가들이 ‘선별지급’을 말하는 이유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포괄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사이의 끊임없는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두 배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소득, 자영업자 소득에 매우 비효율적임을 주장한다. 이는 보편적 지급의 대표적인 근거이다.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인 예산은 14 조 3 천억원이고, 특정 계층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2~4 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총 32 조 1 천억원이 들었으며, 이 중 방역 예산을 제외하면 28 조원으로 약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 때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선별 지급 때에는 1.1%에 그쳤고,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에서도 전국민 지급 때는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으나 선별 지급 때는 1.8%에 그쳤다고 분석한다.⁷

반면, 선별지급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은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 시키는 제도임을 주장한다. 온기운, 이한상, 이상이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적인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기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업종에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불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 소득자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줄이고, 평균소비성향이 100%가 넘어가는 1분위인 하위 20%에 대한 선별지급이 경기부양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⁸

Discussion Questions

- 1) 포괄적 지원의 공평성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경제, 사회적 제도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 2) 선택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공평하고 합당한 분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7 고승은 (2021).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보편지급보다 2 배 쓰고도 효과 미미'. 뉴스프리즈

8 김혜선 (2021). “[소통광장-재난지원금]④ 전문가들이 ‘선별지급’을 말하는 이유.” 뉴스포스트

F. 문화 (Culture)

즉흥토론 주제 (주제 대회 당일 현장 공개)

2.4 학술지 세부 주제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 안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아시아 협력”

세부 내용: 코로나로 인하여 증가한 인간안보 위협들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및 협력 방안,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 방안 분석

UNDP가 정의한 7가지의 인간안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시

안보: 인간 안보의 7가지 분야

코로나 19는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인간안보를 위협하였다. 인간개발보고서(HDR) 1994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롭고, 결핍으로부터 자유(freedom from want)로운 상태’를 가리킨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의 안보에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을 초래하였고, 기존에 존재해왔던 다양한 인간 안보 문제들도 조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지역적/국제적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다음은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른 인간 안보의 7가지 분야이다:

- 경제적 안보
- 식량 안보
- 보건 안보
- 환경 안보
- 개인적 안보
- 공동체 안보
- 정치적 안보



(사진 출처: Trilateral Research)



경제적 안보

경제적 안보는 최저 임금 보장, 고용 보장과 경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접근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경제적 안보] Case Report: 실업률 증가 ⁹
<p>팬데믹의 출현 이전에도 세계 경제는 하락세였다.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일상적이라고 여겨지던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2020 년에는 세계적으로 2019 년 4 분기 대비 근로 시간이 8.8 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2 억 550 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동일하다. (이는 2009 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감소한 수의 약 4 배 가량이기도 하다.) 또한, 글로벌 실업률은 작년 대비 1.1 퍼센트 증가한 6.5 퍼센트에 도달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각각 8.7 퍼센트, 5.0 퍼센트씩 일자리를 잃으며 큰 피해를 입었다. 한코로나 19 백신의 수급과 경제의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었던 미국과 중국 경제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아시아 대륙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경제 성장과 실업률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p>

Discussion Questions:

-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19 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실업률이 사회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
- (취약 집단)
여성과 청소년은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데, 이러한 취약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혹은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9 유엔 통계자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수(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1/goal-08/>



식량 안보

식량 안보는 기본적인 영양과 식량 공급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가리킨다.

[식량 안보] Case Report: 코로나 19 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 임박 ¹⁰
<p>식량 위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식량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특수 상황”을 가리킨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인류는 세계 식량 위기 상황에 놓였다. 식량 위기는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번 코로나 19 위기는 식자재 가격 상승 등 기본적인 식량 문제에 중대한 과제를 안겼다. 해당 현상은 지난 반 세기 이상 동안 목격된 적 없었던 보건과 영양에 위협을 초래하며 세계 식량 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식량 체계는 기후 변화와 서서히 드러나는 환경 파괴 위기의 원인이다. 따라서, 인류가 어떻게 식량을 생산, 처리, 거래 및 소비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재고할 필요가 있다.</p>

Discussion Questions:

- (위험 요소)
코로나 19 는 세계 식량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사회 집단 중 식량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집단은 누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성을 맞닥뜨리고 있는가?
- (식량 가격의 상승과 가난의 증가)
식량 가격의 상승은 코로나 19 의 영향 중 하나이다. 높아진 식량 가격과 세계 가난 (빈곤) 증가 사이에 명백한 관계성이 있는가?
-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요소들: 환경 이슈)
식량 위기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기후 변화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식량 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0 유엔. 2020. 6. 정책 보고: 코로나 19 의 식량 안보와 영양에 대한 영향



보건 안보

보건 안보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한다. 특히,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 안전한 환경에서의 주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족 계획과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의 기본적인 지원, 에이즈와 기타 질병들의 예방,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이 보건 안보에 포괄된다.

[보건 안보]

Case Report: 백신 불평등¹¹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백신 공급은 각 나라의 보건 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국들과 상위 중소득국들은 백신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록했다. 이와 비교하여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은 백신 공급속도가 느리고 보건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백신 공급량과 공급 속도가 다르다는 점은 공정성의 문제로 이어졌으며 보건 안보의 주요 논점으로 뽑힌다. 또한, 이러한 백신 공급률 이외에도 저소득국가에서는 기술의 격차, 백신을 다룰 역량과 보건 시스템의 부족 등의 문제도 발견되었다. 보건 역량의 격차와 백신 공급 등은 보건 안보의 핵심적인 이슈들이다.

Discussion Questions:

- (백신 불평등과 위험)
코로나의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백신 불평등의 실질적 위험성은 무엇인가?
- (글로벌 공공재)
코로나 19 백신은 세계 공공재인가? (혹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취급 되어야 하는가?)
-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세부 논점이 고민되어야 하는가?

11 세계보건기구. 백신 공정성. <https://www.who.int/campaigns/vaccine-equity>



환경 안보

환경은 인류의 삶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환경 안보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삼림 파괴 예방, 관개지 보존¹²,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예방과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환경 안보]

Case Report: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

코로나 19로 인해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 제품들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일회용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었고, 일회용 개인용 보호구(PPE) 폐기물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회용 용기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이에 문제점은 무엇일까?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재사용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은 태워지거나 매립된다. 이는 독성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한 오염이라는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유해한 플라스틱 오염은 토양, 대기와 수중의 유기체들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야생동물들과 인간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플라스틱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BC가 보도했듯이, 그 영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¹³ 따라서 코로나 19이 환경 안보에 미친 영향 및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

Discussion Question:

- (미래에 대한 영향)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로부터 초래되는 미래에 대한 영향과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12 Flint, R. (2020. 9. 26). 코로나 19: 일회용 플라스틱의 영향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BBC 뉴스 <https://www.bbc.com/news/uk-wales-54265590>



개인 안보

개인 안보는 물리적 폭력, 범죄, 테러리즘, 가정 폭력과 아동 노동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개인 안보]

Case Report: 증가하는 가정 폭력¹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로 많은 통계 자료 및 뉴스 보도는 여성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폭력, 특히 가정 폭력이 증가하였고, 그 강도 또한 심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림자 팬데믹(Shadow Pandemic)”이라고도 불리우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에는 안보, 보건 및 재정적 근심, 비좁은 주거환경, 가해자들과 함께하는 자가격리, 락다운(Lock-down)과 같은 이동 제한과 폐허가 된 공공장소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대응과 일상 회복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을 우선시하기 위해 세분화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Discussion Questions:

-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의 어려움)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폭력을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응 체계 - 순찰/출동)
가정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폭력이나 가정 불화 신고에 대한 출동 대응에 변화가 있었는가? 현재 순찰 및 출동 과정은 바람직한가?
- (대응 체계 - 탐지)
가정 폭력 사건을 원활하게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13 그림자 팬데믹: 코로나 19 시대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 여성기구 - 본부.

<https://www.unwomen.org/en/news/in-focus/in-focus-gender-equality-in-covid-19-response/violence-against-women-during-covid-19>



공동체 안보

앞서 언급한 인간 안보의 개념들과 달리, 공동체 안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다. 공동체 안보는 전통과 문화, 언어와 공통의 가치들을 보전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외에도 인종 차별의 철폐, 인종 갈등 예방과 원주민들의 보호 등도 공동체 안보에 포함된다.

[공동체 안보]

Case Report: 증가하는 아시아인 혐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의학적 용어인 코로나 19 를 사용하기보다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⁵ 많은 기사들과 사설들이 이러한 꼬리표를 아시아인 혐오 증가나 중국인 공동체에 대한 차별과 연관 지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정책 및 계획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2020 년 3 월부터 4 월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800 건 이상의 코로나 관련 혐오 사건이 34 개의 지역에서 보고되었음을 밝혔다.¹⁶ 서양 외의 국가들에서도 중국인 공동체에 대한 증오나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가 아시아인과 중국인 공동체의 안보에 제기한 위협을 나타내며, 아시아인 증오 범죄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Discussion Questions:

-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 - 두 용어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두 개념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정부 (대응) 정책의 차이나 정부가 두 개념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문제에 대처하는 법)
증오 사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적절하고 올바른 교육(예컨대, 초기 유년 시절의 교육)이 해당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

14 Rogers, K., Jakes, L., & Swanson, A. (2020. 3. 18). 트럼프가 거세지는 비판을 무시하고 ‘중국 바이러스’ 꼬리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였다.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18/us/politics/china-virus.html>

15 BBC. (2021. 5. 21.)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 ‘증오 범죄’ 증가 추세. BBC 뉴스.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6218684>



정치적 안보

정치적 안보는 개인을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는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투표의 자유나 정치적인 감금, 투옥,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괄한다.

[정치적 안보]

Case Report: 정보의 자유에 대한 침해¹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며, 이는 공공 보건 위기로 이어졌다. 정확하고 증거를 기반하는 정보의 공개와 개인의 정보 접근성,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은 보건 위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탄자니아, 러시아,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억압적인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올바른 정치행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Discussion Questions:

- (국제적 대응)
국제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 (위기 상황 속 권리의 보호)
코로나 19 와 같은 보건 위기 속에서 개인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16 국제 앰네스티. (2021). 침묵당하고 속은 이들: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에 처해 있다.

3. 양식

3.1 토론 양식

1. 한·아시아 청년 토론대회 개요

A. 토론대회 주제 및 가이드라인

한·아시아 청년토론대회는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인 청년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교육, 젠더, 사회, 거버넌스, 정치경제, 문화의 분야에 해당하는 의제를 다루는 대회이다. 본 토론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아래의 토론 의제 중 4가지는 예선에서, 2가지는 본선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 대회 분야 및 토론 질문>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역할 및 방향성”

-
1. **교육:** 아시아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ODA)는 초등교육보다 직업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가?
 2. **젠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저출산 해결은 양립할 수 있는가?
 3. **사회:** 정부는 보건 안보의 위협을 다루는 데에 있어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4. **거버넌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가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
 5. **정치경제:**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포괄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6. **문화:** 즉흥토론 주제 (주제 대회 당일 현장 공개)
-

B. 장소 및 일정

1. 토론대회 일정: 2022 년 08 월 25 일 ~ 2022 년 08 월 26 일
2. 토론대회 예선: 2022 년 8 월 25 일 9:00 - 21:00 (온라인 진행)
3. 토론대회 본선: 2022 년 8 월 26 일 9:00 ~ 20:00 (오프라인 진행)
4. 장소: 예선 - Zoom / 본선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ECC)
5. 진행언어: 한국어

C. 지원자격

1.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 국적의 한국어가 가능한 고등학생 및 2 년제 이상 대학(원)생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자 (3 인 1 팀 구성)
2. '아시아 지역'이란, UN 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름

(<https://www.un.org/dgacm/en/content/regional-groups> 참고)

D. 토론대회 개요

1. 예선 토론대회 개요 (온라인)

- 일정: 2022 년 08 월 25 일 9:00 - 21:00 (온라인 진행)
- 플랫폼: Zoom (*줌 링크는 추후 팀 대표자 이메일로 공지)
- 참가인원: 최대 20 팀 선발 (3 인 1 팀 구성, 최대 60 명 선발)
- 준비사항:
 - 대회 당일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 체크 및 리허설 진행 요망
 - 3 명의 학생이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 1 팀당 1 개의 ZOOM 계정으로 접속
 - 각 연사는 본인 발언 차례가 되면 이동 없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발표
 - 진행 방식:
 - 1) 예선에서는 총 서로 다른 4 개의 주제를 가지고 총 4 판의 예선을 치른다. 4 개의 주제는 사전에 공개되며, 참가자들은 각 주제를 미리 준비해올 수 있으며 대회 당일에는 준비해 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각 팀의 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본선에 진출할 4 팀을 선발한다.
 - 동점처리방식: 각 팀의 예선 승패가 동일한 경우, 개인 스피커 점수를 반영하여 개인 스피커 점수의 합산이 더 높은 팀을 선발하도록 한다. (예: 3 승 1 패라는 같은 예선 결과를 가진 3 팀이 있을 경우, 팀의 각 연사들의 개인 스피커 점수 합산이 더 높은 팀 순으로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 2) 예선은 Zoom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모든 참가자들이 모인 후 정해진 대진표에 따라 참가자들을 각 소회의실로 배정하도록 한다.
 - 3) 모든 팀들이 정해진 소회의실로 모인 후, 각 소회의실의 심판은 토론을 진행·심판한다. 각 연사들은 토론 주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며, 이외의 주제에 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4) 예선전 모든 라운드는 주제를 미리 공개하는 준비 토론 (Prepared Debate)의 형태이기에 대회 중에 제공하는 토론 준비 시간은 따로 없다. 매 라운드 소회의실 이동 직후 토론은 시작되며 각 연사는 정해진 발언시간에 따라 발언한다. 양 팀의 모든 발언이 끝난 후, 심판위원단이 1 명일 경우 소회의실의 이동 없이 카메라를 끈 채 판정 결과를 정한다. 심판위원단이 2 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소회의실에 배치되어 판정결과에 대한 심사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의한다. 이 때에 토론자들은 휴식 시간을 갖는다. 판정 결정 이후 다시 양팀이 있는 소회의실에서 판정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라운드를 종료한다.

- 5) 매 라운드 종료 후, 모든 팀은 다시 메인 회의실에 모여 안내에 따라 다음 라운드에 임할 준비를 한다. 이 과정으로 각 팀은 총 4 판의 예선을 빠짐없이 진행하고, 모든 예선 토론 후에 본선 진출할 최종 4 팀을 선발한다.
- 6) 온라인 대회 특성상, 시간 엄수는 중요하다. 약속된 시간에 카메라를 켜지 못하거나 팀원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라운드는 즉시 실격 처리된다.

* 대진표는 매 라운드 직전 ZOOM 화면을 통해 공지되고 각 팀은 대진표에서 찬/반 여부와 상대팀만 확인

* 대회에서 사용될 ZOOM 주소는 추후 각 팀의 대표자 이메일로 공지

2. 본선 토론대회 개요 (오프라인)

- 일정: 2022 년 8 월 26 일 9:00 ~ 20:00 (오프라인 진행)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ECC)
- 참가인원: 예선 경기에서 총 4 팀 (참여자 수에 따라 변동 가능), 총 12 명이 본선에 참가한다. 본선에서는 4 강과 결승을 진행하며, 즉흥 토론 1 번, 준비 토론 1 번으로 이루어진다.
- 진행 방식:
 - 1) 예선 대회에서 선발된 4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4 강부터 시작하여 결승까지 토론을 하고, 최종 우승팀을 가려낸다. 3, 4 위 전은 하지 않으며, 4 강에서 진 두 팀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상한다.
 - 2) 본선의 대진표는 예선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공개된 대진표에 따라 각 팀들은 해당 토론 장소로 이동한다.
 - 3) 4 강의 경우 즉흥 토론 (Impromptu Debate)으로, 대회 당일 토론 의제를 제시한 후 각 팀은 약 40 분의 준비 시간을 갖는다. 40 분 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팀원들과 상의를 통해 토론을 준비하여야 한다. 결승의 경우 준비 토론 (Prepared Debate)으로, 주제는 사전에 공개되며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한 팀의 발언을 미리 준비하며, 대회 당일 준비해 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결승전 주제는 미리 공개하였기 때문에 대회 당일 제공되는 준비 시간은 없다.
 - 4) 각 연사들은 토론 의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며, 이외의 의제에 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토론은 각 연사의 정해진 발언 시간에 따라 발언을 하고, 양 팀의 모든 발언이 끝난 후, 심판위원단은 장소를 이동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심사의견을 나누고 협의한다. 이 때 토론자들은 대강의실에서 휴식 시간을 갖는다. 판정이 완료된 심판위원단은 대강의실로 돌아와 판정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자들에게 간단하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6) 결승전 후 토론대회 결승의 결과는 시상식에서 공개한다.

E. 토론팀의 구성 및 역할

각 토론은 총 2 팀,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뉜다. 한 팀당 3 인으로 구성되어 총 6 명의 연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각 연사의 역할과 발언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찬성 측의 첫 번째 연사

- 찬성 측 첫 번째 연사는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정의를 한 후, 찬성 측의 전체적인 입장과 핵심적인 주장을 펼친다.

2) 반대 측의 첫 번째 연사

- 반대 측 첫 번째 연사는 주제에 대한 반대측의 전체적인 입장과 핵심적인 주장을 펼치고, 찬성 측 첫 번째 연사의 문제제기 및 정의에 대한 반대측의 입장을 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인정 혹은 이의제기를 통해 표현한다.

3) 찬성 측의 두 번째 연사

- 찬성 측 두 번째 연사는 앞서 언급된 반대 측 첫 번째 연사의 의견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통해 반박하고, 찬성 측의 나머지 주장들을 펼친다.

4) 반대 측의 두 번째 연사

- 반대 측 두 번째 연사는 앞서 언급된 찬성 측 두 번째 연사의 의견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통해 반박하고, 반대 측의 나머지 주장들을 펼친다.

5) 찬성 측의 세 번째 연사

- 찬성 측 세 번째 연사는 전체적인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여 찬성 측의 주장이 토론의 쟁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입장이었음을 증명한다.

6) 반대 측의 세 번째 연사

- 반대 측 세 번째 연사는 전체적인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 측 주장과 찬성 측 주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비교, 분석하여 반대 측의 주장이 토론의 쟁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입장이었음을 증명한다.

F. 토론 운영규정

- 1) 온라인/오프라인 토론장에는 찬성팀과 반대팀 연사 총 6 명 그리고 심판 위원단 1-3 명이 참여한다. 심판위원단의 수는 예선과 본선에 따라 달라진다.
- 2) 예선전에서는 팀의 팀원 3 인을 제외한 제 3 자가 화면에 들어오거나 같은 장소에 함께할 수 없으며, 본선 4 강에서는 토론자들의 동의 하에 참관을 허용한다. 결승에서의 참관은 토론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허용된다.
- 3) 토론은 기본적으로 심판장이 주관하고, 발언 순서에 따라 연사를 호명하여 발언하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을 맡는다. 심판장은 전체적인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모든 연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 4) 발언시간은 각 연사 당 최대 5 분으로 주어지며, 발언시간이 초과하였는데도 연사가 발언을 마무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갈 경우 심판장은 연사의 발언이 제한시간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반복하여 알릴 수 있다. 연사의 발언이 6 분을 초과하면, 심판장은 발언을 멈추도록 지시해야 한다. (온라인의 경우, 연사를 음소거 처리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마이크의 전원을 끌 수 있다.)
- 5) 각 팀의 연사들은 매 토론 경기마다 정해진 의제에 대해서 자신의 순서에 맞춰 발언을 하며, 연사의 발언순서는 토론 도중 변경될 수 없다. 연사는 정해진 발언시간내에 발언을 마치도록 하며,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발언의 마무리를 요청하는 심판장의 개입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정중하게 발언을 마치도록 한다.
- 6) 상대방이 발언을 하는 도중 비웃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기 위해 부득이한 팀내 상의를 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입장 발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종이에 적어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발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하며 하도록 한다.
- 7) 이의 제기는 상대방의 발언이 모두 종료된 후, 손을 들고 할 수 있으며, 이의에 대한 대응은 심판장의 주관아래 진행된다. 이의 제기가 있을 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의를 공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G. 심사기준

1. 논리성

-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
- 주장의 일관성
- 논리 전개의 타당성

2. 적절성

- 토론의 대주제와 토론 의제에 대한 이해도
- 토론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주장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3. 태도

- 토론운영규정 준수여부
- 팀원들간의 협동심
- 토론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

H. 시상 내역

1) 대상: 상장 및 3박 5일 베트남 여행 (1 팀)

*항공 및 숙박 지원, 코트라 견학 필수이며 이외에는 자유여행, 코로나 상황 및 일정에 따라 상금 70 만원으로 대체 가능

2)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 만원 (1 팀)

3) 우수상: 상장 및 상금 25 만원 (2 팀)

* 예선전 참여 시 참가 인증서 제공

I. 청년토론대회 일정 *세부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웹사이트에 기재

Day 1 (8 월 25 일)

예선전은 온라인 진행 / 본선전은 오프라인 진행

시간	활동	내용
8:30-9:00	줌 접속	참가자 전원 줌 접속 완료
9:00-9:30	인사말	주최측 인사말 및 토론 대회 소개
9:30-10:00	예선 1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0:00-11:30	예선 1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1:30-12:00	예선 2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2:00-13:30	예선 2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3:30-14:30	점심	점심
14:30-15:00	예선 3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5:00-16:30	예선 3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6:30-17:00	예선 4 라운드 설명	주제 설명 및 소회의실 배정
17:00-18:30	예선 4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8:30-19:00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및 주최측 점수 합산
19:00-20:00	발표	예선 순위 발표, 본선 진출 팀 확정
20:00-	종료	종료

Day 2 (8 월 26 일)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시간	활동	내용
8:30-9:00	참가자 체크인	오프라인 체크인
9:00-9:30	인사말	주최측 인사말 및 포럼 소개
9:30-10:00	본선 4강 라운드 설명	즉흥 토론 주제 설명 및 토론장 이동
10:00-10:40	즉흥 토론 준비 시간	즉흥 토론 준비, 전자 기기 반입 금지
10:40-12:00	본선 4강 라운드	피드백까지 완료
12:00-13:00	점심	점심
13:00-14:30	사진 촬영 (본선 진출자 전원, 참가자, 스태프 등), 주최측 준비 강연	
14:30-16:30	학술지 대회 본선 발표 참관	
16:30-17:00	토론 결승 설명	주제 설명 및 결승 준비
17:00-18:00	토론 결승	결승 진행
18:00-18:30	쉬는 시간	토론 대회 순위 확정
18:30-19:00	시상	포럼 (토론 대회, 학술지 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
19:00-	폐회식	폐회식

3.2 학술지대회 양식

1. 국제학술지대회 공모 개요

A. 공모 주제 및 가이드라인

학술지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보”이며 여러가지 안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한·아시아 간에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UNDP 가 정의한 7 가지의 인간안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 명시 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정책 제안을 제시해야 함. (*2.4 학술지 세부 주제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음)

- 질문: 코로나 19 로 인해 인간 보안의 7 가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악화되었다. 한국 또는 한-아시아 협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 정책 제안: 정책 이름, 정책 내용,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의 예상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 학술지 작성을 권장하는 바이며, 제도적, 법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건설적 정책 제안이 포함되기를 권장한다.

B. 기간 및 일정

- 1) 신청서 접수기간: 2022 년 7 월 18 일 9:00 시 ~ 2022 년 8 월 5 일 23:59 시까지
 - 2) 학술지 제출기간: 2022 년 8 월 12 일 23:59 시까지 (이메일 제출)
 - 3) 시상식 및 학술지 발표: 2022 월 8 월 26 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ECC)
- *학술지 발표는 본선 진출자에 한하여 참여, 20 분의 발표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C. 지원자격

- 1)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 국적의 한국어가 가능한 고등학생 및 2 년제 이상 대학(원)생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자
 - 2) 개인 또는 팀 참여, 3 인까지 공동참여 가능. 팀원 모두 자격 충족 해야함
- *‘아시아 지역’이란, UN 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름
(<https://www.un.org/dgacm/en/content/regional-groups> 참고)

2. 대회 소개사

A. 접수 및 제출, 학술지 작성 방법

1) 신청서 접수 방법: 최종 학술지 제출 이전 공모전 참가 신청 반드시 필요.

웹사이트(www.mzasia.org)에 있는 구글폼으로 신청서 작성 (08 월 5 일 23:59 시까지)

2) 제출방법

a. 파일 및 증빙서류 이메일로 제출(asia.mzgen@gmail.com) (08 월 12 일 23:59 까지)

*논문파일명: 논문제목_참가자이름(대표 1 인).docx 2

b. 파일 제출시 참가자 전체의 증명서 파일을 함께 첨부: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연구생등록증명서 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B. 출품규격

1) 작성 언어: 영어

2) 기본 규격

3) MS 워드 A4 10-15 매 (참고문헌 제외); 워드(docx) 파일로 제출, Times New Roman 12 포인트, 줄 간격 1.5 줄, 여백 보통 * 각주, 인용표기, 참고문헌 등의 작성 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형식을 따라야 함.

4) 작성시 APA 스타일 또는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과 같이 하나의 일관된 학술 인용/참조 형식을 따를 것을 권장함.

5) 온라인 신청 단계 (08 월 5 일 마감)에서 제출된 제목과 요약은 최종 제출(08 월 12 일 23 시 59 분 마감)시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최종본 제출 후에는 재제출/변경할 수 없음.

C. 유의사항

1)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표절이 확인될 경우 즉각 심사에서 배제되며 입상이 취소됨.

2) 학위 취득에 사용된 논문이나 이미 학술지 등 지면에 게재된 글, 타 공모전 수상 글은 제출할 수 없으며 확인 즉시 입상이 취소됨.

3) 3 인 이내의 팀이 입상할 경우, 상장은 입상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수여되나, 상금은 1 인 수상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수여됨.

4) 입상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후 1 개월 이내에 삭제, 폐기하며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5)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의 지적재산권은 응모자와 주최 측이 공유하도록 함.

3. 심사 기준

- 1) 코로나와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2) 이론적, 실증적, 정책적 함의 및 기여도
- 3) 적절성 및 구체성
- 4) 논리전개의 타당성
- 5) 서술의 정확성
- 6) 주장에 대한 근거와 뒷받침
- 7) 정책 제안의 독창성,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8) 대회 당일 발표 및 QnA

4. 시상 내역

심사위원이 3 편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본선 진출권 부여, 본선 발표 및 시상식에는 팀 전원이 참석해야 함

- 1) 대상: 상장 및 3박 5일 베트남 여행 (1 팀)

*항공 및 숙박 지원, 코트라 견학 필수이며 이외에는 자유여행, 코로나 상황 및 일정에 따라 상금 70 만원으로 대체 가능

- 2)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 만원 (1 팀)

- 3) 우수상: 상장 및 상금 25 만원 (1 팀)

* 예선전 참여 시 참가 인증서 제공

5. 국제학술지대회 일정 *세부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웹사이트에 기재

Day 1 (8 월 25 일)

예선전 심사 후 본선 진출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웹사이트에 예선 결과 공지/ 본선전은 오프라인 진행

Day 2 (8 월 26 일)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

시간	활동	내용
12:00-13:00	참가자 체크인	오프라인 체크인
13:00-14:30	사진 촬영 (본선 진출자 전원, 참가자, 스태프 등), 주최측 준비 강연	
14:30-16:30	본선 발표 (상위 3 팀)	각 팀 발표 (15-20 분) 후 질의응답 (10 분)
16:30-18:00	토론대회 결승 참관	토론 대회 결승 참관
18:00-18:30	휴식시간	토론 대회 순위 확정
18:30-19:00	상장 수여식	포럼 (토론 대회, 학술지 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
19:00-	폐회식	폐회식

4. 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louMNde>

이메일: asia.mzgen@gmail.com

인스타그램: [asia.mzgen](https://www.instagram.com/asia.mzgen)

웹사이트: <https://www.mzasia.org>

5. 참고 문헌

- 고승은 (2021).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보편지급보다 2 배 쓰고도 효과 미미'. 뉴스프리즘
- 김남순, 송은솔, 박은자, 전진아, 변지혜 and 문주현 (2020). 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 19 대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주, 정복교 and 윤정아. (2021). 코로나 19 시대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9(2), 3-48.
- 김혜선 (2021). "[소통광장-재난지원금]④ 전문가들이 '선별지급'을 말하는 이유." 뉴스포스트
- 매일경제 (2020). "[패러다임 전환시대 ESG 경영] Part I 'ESG 경영' 사례 | 글로벌 스탠더드 뛰어넘는 초우량기업 조건, 저탄소 배출·사회적 책임 다해야 회사도 흥련
- 박성경 and 신진욱. (2021). 코로나 19 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37(1), 153-189.
- 서울경제. (2021). "ESG 공시법안 난립...기업은 고달프다."
- 손철성.(2007).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동서사상.3(),17-32.
- 송유미 and 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월드투게더 (2021). 2020 년 월드투게더 연차보고서.
- 이수희. (200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영미 and 박윤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36, 101-137.
- 한상범, 권세훈, 임상균. (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 엠네스티. (2021). 침묵당하고 속은 이들: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에 처해 있다.
- 아세안-한국 센터 (2021), 2021 상호 인식 조사
- BBC. (2021. 5. 21.)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 '증오 범죄' 증가 추세. BBC 뉴스.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6218684>
- CNBC. (2022. 1. 25.). 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 GDP 성장이 11 년 간 최고치를 기록. CNBC. <https://www.cnbc.com/2022/01/25/south-koreas-gdp-growth-hit-11-year-high-in-2021-as-exports-boom.html>
- Flint, R. (2020. 9. 26). 코로나 19: 일회용 플라스틱의 영향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BBC 뉴스. <https://www.bbc.com/news/uk-wales-54265590>
- 싱가포르 정부. (2021. 5. 14.). 2 단계(경계 강화)에 따른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Singapore Gov.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https://www.gov.sg/article/additional-restrictions-under-phase-2--heightened-alert>
- HARTIGAN-Go, K. Y., Mendoza, R. U. (2021. 10. 22.). 싱가포르와 필리핀: 제로 코로나 19 로부터 코로나 19 와 함께 살기까지. -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10/singapore-and-the-philippines-from-zero-covid-19-to-living-with-covid-19/>
- Rogers, K., Jakes, L., & Swanson, A. (2020. 3. 18). 트럼프가 거세지는 비판을 무시하고 '중국 바이러스' 꼬리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였다.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18/us/politics/china-virus.html>
- 그림자 팬데믹: 코로나 19 시대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 여성기구 - 본부. <https://www.unwomen.org/en/news/in-focus/in-focus-gender-equality-in-covid-19-response/violence-against-women-during-covid-19>
- Trilateral Research. 어쩌서 인간 안보가 중요한가? (2021, October 13). Retrieved from <https://www.trilateralresearch.com/why-is-human-security-important/>
-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2009 년 UNISDR 재난위험경감용어집 (2009)
- 유엔. 2020. 6. 정책 보고: 코로나 19 의 식량 안보와 영양에 대한 영향
- 유엔 통계자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수(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1/goal-08/>
- 세계보건기구. 백신 공정성. <https://www.who.int/campaigns/vaccine-equity>
-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코로나바이러스 현황판. <https://covid19.who.int/>



MZ ASIA

한아시아 청년대표단